

사회

# 풀린 날씨, 안전의식도 풀렸다

## 광주·전남 산업현장 사망사고 잇따라 작년 161명 숨져... 광주권 30%나 늘어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들어서만 벌써 10건을 넘겼다. 특히 봄철 일감이 늘고 날씨가 풀리면서 근로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

15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주택·도로·조선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161명이 숨졌고, 올들어서도 벌써 10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산업재해자 수는 총 6032명, 재해를 0.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161명으로 전년도 149명보다 8.0%(12명) 급증했다. 특히 소형주택 건설 붐이 일어난 광주권역(광주와 인근 전남)의 사망사고가 크게 늘었다. 전년도 69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30.4%나 급증했다.

사망사고는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권 산업재해 중 3월에 7명, 4월 12명, 5월 6명이 숨졌다.

이러는 겨울을 지나면서 일감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날씨가 풀리면서 나른해져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재해의 73.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사망사고 3건 중 1건(52명, 32.3%)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5인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보호장구와 안전펜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이모씨가 광주시 서구 풍암동 다가구주택 신축 현장 4층 옥상에서 거꾸집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공사 현장엔 기본적인 안전 펜스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산업과는 달리 한 곳의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고 여러 곳의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교육, 건강진단 등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사고발생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35명)과 운수창고통신업(21명)에서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불황으로 인해 인원이 줄면서 업무가 늘어 과로·과속·졸음운전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재호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보호구만 착용해도 사망재해자의 절반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지역책임 전담제·암행점검 등 건설현장의 안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순천 ‘청산거리 막걸리 살인’ 父女 무기·징역 20년 확정

### 대법 “범행도구 진술 일치”

순천지역을 떠돌아다니며 했던 일명 ‘청산거리 막걸리 살인’과 관련 대법원이 부녀의 자백을 근거로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62)씨와 딸(29)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실제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돼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합작 공방을 벌여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가 번갈아 선고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가 범행을 시인한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반복하면서 증거 능력이 낮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녀의 진술에서 청산거리 형태와 색깔, 보관 방법 등 범행 내용에서 상당부분 일치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살인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상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인륜적인 성 관계를 맺어왔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과 관련 “범행 도구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청산거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씨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B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위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무기산 640ℓ 불법 사용 김양식업자 적발 조사

목포해양경찰은 15일 김양식장에서 무기산을 사용한 양식업자 안모(57)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진도 한 야산에 무기산 32통(640ℓ)을 숨겨놓고 인적이 드문 야간에 선박을 이용해 양식장에서 무기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숨겨놓은 무기산 40ℓ를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지적장애인이 드라이버 하나로 절도 행각

**전국돌며 식당·상가 털어**

15일 오후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계. 절도범을 수원에서 붙잡아 온 김옥수 강력팀장이 범인을 앞에 놓고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A(23)씨는 정작 알고보니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절도 수법만큼은 어느 전과자에 못지않았기 때문이다.

현금 218만원, 드라이버, 손전등, 맥가이버 칼..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범행 도구와 흉전 돈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1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모 해물탕집에 들어가 금고에서 30여만원을 훔치는 등 광주와

정읍에서 총 4차례에 걸쳐 330여 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처음 남의 돈을 든 것은 지난 2006년 고향 정읍에서 중급급 배달원으로 생활하다 빈 가게에서 돈을 훔치면서부터다. 이후 잇따른 절도로 보호감호 처분과 집행유예 선고 등을 받았다.

그의 수법은 영업을 끝난 식당이나 상가를 골라, 드라이버로 문을 뜯고 들어가는 식이며 경찰은 드라이버 사용자 거의 ‘달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스스로 ‘50건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기억을 해내지 못해 조사를 담당할 경찰관 골치가 아프다.

/김대식기자 bigkim@kwangju.co.kr



15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사랑지역협의회 발대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조현오 경찰청장, 윤봉근 광주시의회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경미 가해자 선도, 일진은 엄벌”

**광주 온 조현오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은 15일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회복적 사법이론을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광주지방경찰청 빛고을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없는 광주 만들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감담회’에 참석해 “꼭 가해자에 대한 처벌

만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고 경미한 가해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모든 학교 폭력 문제에 경찰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교사들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조직화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 나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경원 21일 출석 요구**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나 전 의원에 대해 21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김 판사와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20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박 검사에게 경찰 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고 김 판사도 당초 오늘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오지 않아 2명에게 20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료 근로자 집단폭행  
스리랑카인 3명 구속**

광주경찰청 외사계는 15일 같은 국적의 동료 근로자를 집단폭행한 A(30)씨 등 스리랑카인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집단폭행에 가담한 같은 국적의 B(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7명은 지난 4일 새벽 1시 30분께 광산구 모 공단 내 스리랑카인 정기모임 장소에서 C(32)씨를 집단폭행하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C씨를 위협한 혐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물! 도 태양열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원 350kwh 생산 기준표)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